

## 모 자아분화가 자녀 자아분화와 모-자녀관계를 통해 아동의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양 영 화

정 주 리<sup>†</sup>

전남대학교

이 연구는 Bowen(1978)의 가족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후기 아동들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 자아분화와 아동의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에서 자녀 자아분화, 모-자녀관계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학생 및 해당 어머니 490명(남학생 229명, 여학생 261명)을 대상으로 어머니는 모 자아분화 척도, 아동들은 자녀 자아분화, 모-자녀관계, 또래관계 질 척도에 응답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 자아분화에서 아동의 또래관계 질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녀 자아분화의 단독 매개효과, 자녀 자아분화와 모-자녀관계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예측과 다르게 모-자녀관계의 단독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자아분화는 자녀의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자아분화는 아동의 또래관계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모-자녀관계를 통해서도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관계 질 증진을 위해서 아동의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긍정적인 모-자녀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주요어 : 모 자아분화, 자녀 자아분화, 모-자녀관계, 또래관계 질, 초등학생

\* 이 논문은 양영화(2018)의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주리,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최초로 맺는 부모-자녀관계를 시작으로 전 생애 동안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고 발달해 간다. 주양육자와의 관계가 핵심적이었던 유아기를 지나 아동기가 되면 생의 관계는 부모 및 가족으로부터 또래 친구로 확장되어 간다(최은실, 정선아, 2012). 이 시기에 경험하는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자기개념을 발달시키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학교 생활적응 뿐만 아니라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사회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Rubin, Dwyer, Booth-LaForce, Kim, Burgess, & Rose-Krasnor, 2004; Underwood & Rosen, 2011).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에 해당되는 후기 아동기에 들어서면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또래에 대한 소속감이 커지면서 또래에게 더 의지하게 되고 부모에 대한 의존성은 줄어들기 시작한다(윤혜경, 이지연, 2010; Buist, Deković, Meeus, & van Aken, 2002).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에게 있어서 또래는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 모델, 강화자, 사회적 비교대상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자 역할도 하게 된다(Shaffer, 1994). 이처럼 또래관계는 아동의 심리적 행복은 물론, 심리사회적 발달, 사회인지적 성장, 사회 기술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조영주, 최해림, 2001; Bowker, Nelson, Markovic, & Luster, 2014). 따라서 이 시기에 좋은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동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없는 아동은 고독감이나 우울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Parker & Asher, 1987).

하지만 아동의 또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아동과 관련된 발달적 특성을 잘 설명하지 못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Bukowski, Newcomb, & Hartup, 1997). 특히 아동의 사회적 발달과 관련 있는 심리사회적 환경인 부모와의 연관성과 영향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설경옥, 정승원, 2013). 하지만 아동의 또래관계 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또래관계 형성 이전에 가족들, 특히 주양육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은 주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과 대인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표상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이다(Ainsworth & Bowlby, 1991). 즉, 아동의 성격, 정서, 사회성 등은 일차적으로 가정 안에서 부모와 가족 사이의 관계를 통해 형성이 되고, 이러한 가족 관계에서의 특성과 성향이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아동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가족요인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Minuchin, 1985). 따라서 아동의 또래관계 질은 심리사회적 환경인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Bowen(1978)의 가족체계이론은 아동기의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부모, 가족의 영향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한 개인이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한 발달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원가족에서 분화(differentiation)를 경험해야 한다(Anderson, & Sabatelli, 1992). 분화란 가족체계 내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의존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한 개인은 가족과 적절한 친밀감과 분리감 모두를 획득해야 한다(Bowen & Kerr, 1988). 가족으로부터 분화가 잘 된 개인은 심리적 적응성과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이 높고 타인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으나(Skowron, 2004), 가족으로부터 분화가 잘 되지 못한 경우에는 심리적 건강 및 관계 형성에서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Lim & Jenning, 1996).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은 아이들의 자아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Nichols & Schwartz, 2001/2002; Peleg, 2005). Bowen(1978)은 이것을 다세대 전수과정이라고 하였다.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의 이상을 자녀에게 투사하여 자녀가 자신의 이상대로 성장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자녀를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양육하며(Satir, 1967/2004), 자녀에게 정서적인 대응을 덜 하며, 스스로 자신을 규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관계에서 친밀감과 자율성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수 있다(Bowen, 1978). 반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부모는 관계에서 경직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며, 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 친밀감과 자율성이 부족하다(Bowen, 1978; Kerr & Bowen, 1988/2005). 또한 부모가 원가족으로부터 분화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은희, 전춘애, 1995; 전연진, 2002; 제석봉, 1989). 따라서 가족체계 속에서 자녀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모 자아분화의 수준이 높아야 하고, 부모-자녀관계가 정서적으로 융합되지 않아야 한다.

부모의 자아분화가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자녀 자아분화 역시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자녀는 부모-자녀관계에서 밀착되고 의존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Gavazzi, 1993). 분화수준이 낮은 부모로부터 투사 대상

이 된 자녀는 부모와 공생적 관계를 이룸으로써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융합된 관계를 가지게 되지만, 분화가 잘 된 개인은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맺으며(김정택, 심혜숙, 1993), 역기능적인 행동을 덜 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연, 2007; 제석봉, 1989). 뿐만 아니라, 자아분화가 잘 되어 있는 아동은 자율적이면서도 또래친밀감이 높은 모습을 보여 질 좋은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나, 자아분화가 낮으면 또래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융합된 모습을 보였으며(정경연, 심혜숙, 2007), 일반적으로 타인의 뜻에 따르며 자기입장을 잘 표현하지 못했다(배미예, 이은희, 2009). 이를 통해 아동의 자아분화 수준은 부모-자녀관계 및 또래관계 질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의 영향을 받는 부모-자녀관계 역시 자녀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Williamson과 Bray(1988)는 가족 내에서 부모와 형성한 친밀감과 개별화는 개인의 다른 중요한 대인관계로 확대된다고 하였다. Kleiman(1981) 역시 건강한 가족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자율감을 경험할 수 있어 친구들과도 더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가족이 정서적으로 건강할 때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김병수, 2009),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이며 심리적인 안정감이 높았고(Grotevant & Cooper, 1985; Kerns, Klepac & Cole, 1996), 자녀의 또래관계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지은, 신용

주, 2002).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라는 사회적 관계의 두 축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될 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경험이 또래관계를 위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동의 또래관계 질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 자아분화, 자녀 자아분화, 부모-자녀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자아분화가 대인 관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중요한 심리적 개념 중 하나임을 고려해 볼 때, 부모 자아분화와 자녀의 자아분화, 부모-자녀 관계 및 아동의 또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안정된 부모-자녀관계를 토대로 개인이 대인 관계에서 자율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부모 자아분화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자녀의 자아분화와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하지만 Bowen(1978)의 가족체계이론을 통해 모 자아분화와 또래관계 질과의 관계에서 자녀 자아분화와 부모-자녀관계의 매개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가족체계이론의 다세대 전수 과정을 통해 분화수준이 낮은 부모는 부모의 불안을 자녀에게 투사하고,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을 낮춤으로써 대인관계에서의 취약성이 세대를 넘어 전이되어(Kerr & Bowen, 1988/2005), 부모-자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의 다른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Steinberg, 2001). 이처럼 부모 자아분화의 영향력은 자녀 자아분화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고, 자녀 자아분화와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또래관계 질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때, 가족체계 안에서 부모 자아분화가 자녀의 또래관계 질에서 자녀의 자아분화와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 자아분화는 제외하고 모 자아분화만을 상정해 자녀의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아동기 자녀와 훨씬 더 많은 접촉을 가지며(유신복, 손원숙, 2013; 한동현, 김완일, 2013) 생활 속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자녀의 지적·정서적·성격적 측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자아분화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Kerr & Bowen, 1988/2005).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초등학교의 경우 가족체계 내에서 부모보다는 모와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자아분화와 더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연,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져가는 아동기 후기 자녀들(초등학교 5, 6학년)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족체계 내에서 모 자아분화를 살펴보고, 모 자아분화가 세대전수 되어 자녀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과 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의 사회적 관계인 또래관계 질에까지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Bowen(1978)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하여 자아분화의 다세대전수과정을 거쳐 가족 맥락에서 습득되는 대인간 행동들이 또래 맥락으로 전이되어 가족체계 밖의 또래관계 질에까지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 같다.

**연구문제 1.** 모 자아분화는 자녀 자아분화를 매개로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모 자아분화는 모-자녀관계를 매개로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모 자아분화는 자녀 자아분화와 모-자녀관계를 매개로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 방 법

### 연구 대상

이 연구는 C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HRB No. 1040198-160802-HR-067-02). 연구대상은 G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학생 및 해당 어머니로, 총 490쌍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학생은 229명(46.8%), 여학생은 261명(53.3%)이 참여하였고, 학년별로는 5학년 292명(59.6%), 6학년 198명(40.4%)이었다.

### 측정 도구

#### 모 자아분화

모 자아분화 척도는 Skowron과 Friedlander (1988)가 개발하고 Skowron과 Schmit(2003)가 보완한 DSI(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척도를 정경연(2007)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경연(2007)의 연구에서 부모 자아분화척도는 예비검사를 통해 46문항 중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2개의 문항을 제외한 4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자아분화 척도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반응성(emotional reactivity) 11문항, 나-위치(I-Position) 10문항,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 12문항, 타인과의 융합(fusion with others) 11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 자아분화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 자아분화 잠재변인의 ‘나 위치’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아 나-위치 하위요인을 제외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자아분화 하위요인 중 나-위치는 자아분화 전체 점수와 낮은 관련성을 보였다(김갑숙, 전영숙, 2009; 이지민, 2010; 정경연,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요인들만을 자아분화의 측정변인으로 삼았다. 정서적 반응성,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 하위요인에서 점수가 높으면 자아분화가 낮음을 의미한다. 나-위치를 제외한 3개 하위요인은 모두 역채점 처리하여 자아분화 총합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정경연(2007)의 연구에서의 정서적 반응성 .80, 정서적 단절 .73, 타인과의 융합 .7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9였고, 정서적 반응성 .81, 정서적 단절 .77, 타인과의 융합 .72로 나타났다.

#### 자녀 자아분화

자녀 자아분화 척도는 정경연(2007)이 DSI를 성인용으로 번안한 다음, 아동용으로 수정·보완하여 용어나 문항을 연구대상에 맞게 재조정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4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자녀 자아분화 척도도 모 자아분화 척도와 동일하게 나-위치 하위요인은 제외하였다. 정경연(2007)의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정서적 반응성 .81, 정서적 단절 .74, 타인과의 융합 .72, 전체 신뢰도 계수는 .83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녀 자아분화 척도에서 Cronbach’s  $\alpha$ 는 .89였고, 정서적 반응성 .81, 정서적 단절 .73, 타인과의 융합 .71로 나타났다.

### 모-자녀관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이미경과 김성희(2011)가 개발한 초등학생용 부모-자녀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부모-자녀관계의 구성요소는 친밀·지지, 권위·통제, 부모 간 관계, 과잉기대, 허용·지원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총 30문항이다. 권위·통제, 부모 간 관계, 과잉기대 하위요인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모-자녀관계를 나타냄을 의미하였다. 이미경, 김성희(2011)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89였고, 5개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73-.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모-자녀관계 척도에서 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고, 친밀·지지 .90, 권위·통제 .85, 부모간 관계 .84, 과잉 기대 .86, 허용·지원 .79로 나타났다.

### 또래관계 질

또래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Furman과 Buhrmester(1985)가 개발한 NRI(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의 척도 중 또래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특성만을 추출하여 유안진, 한유진과 김진경(2002)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은 우의, 상호친밀·공감대, 정서적·사회적지지, 갈등해결, 인기, 또래관계 만족도로 구성된 긍정적 또래관계 20문항과 갈등과 대립, 일방적 주도, 철회·고립, 무시, 또래관계 불만족으로 구성된 부정적 또래관계 20문항, 총 40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또래관계 질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2였고, 긍정적 또래관계 .92, 부정적 또래관계 .83으로 나타났다.

### 연구 절차

이 연구를 위해 G광역시 8개 초등학교 48학급의 5, 6학년 학생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8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여 설문지는 어머니용, 학생용 각각 개별봉투에 넣어서 학생편에 가정으로 보내어 어머니들은 모 자아분화 척도를, 자녀들은 자녀 자아분화, 모-자녀관계, 또래관계 질 척도를 따로 응답하고 별도의 봉투에 넣도록 하였다. 배포된 설문지가 가정에서 작성된 후 다시 학생 편으로 수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누락될 비율을 고려하여 총 900쌍의 설문지가 배부되었다. 총 697쌍(약 77.3%)의 자료가 수거되었고, 수거된 설문지 중 모와 자녀 중 한사람만 설문지에 참여하였거나,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07쌍의 자료를 제외하고, 어머니와 자녀 모두가 성실하게 응답한 490쌍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들은 IBM SPSS Statistics 23.0과 IBM SPSS Amos 2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각 연구변인을 구성하는 하위변인들의 기술통계값(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을 산출한 다음, 상관분석을 통해 하위변인 간 상관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하위변인별 분포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검토하여 자료의 정규성 가정을 판단하였다. 둘째, 연구문제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 자아분화, 자녀 자아분화, 모-자녀관계, 자녀의 또래관계 질 잠재변인을 나타내기 위해 각 척도의 하위요인들을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모 자아분화와 또래관계 질 간 관계에서 모-자녀관계, 자녀 자아분화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인을 설정하고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 결 과

###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모 자아분화, 자녀 자아분화, 모-자녀관계, 자녀의 또래관계 질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1과 같다. 측정변인들의 왜도 절대값이 3.0보다 크지 않았고, 첨도 절대값도 8.0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았다(Kline, 2010). 그러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다른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였으나, 모 자아분화와 자녀의 또래관계 질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r=.063$ ).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에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두 변인 간의 관계가 매개변인에 의해 완전매개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즉, 변인 간 직접효과는 없더라도 간접효과가 있을 수 있다(Hayes, 2009). 본 연구에서도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자녀 자아분화와 모-자녀관계에 의해 매개될 가능성을 상정하였기에 두 변인 간의 상관값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의 분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비롯한 측정모형 검증을 먼저 하여 측정변인들이 각각의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였다. 측정모형 분석결과,  $\chi^2(59) = 425.881$ ,  $p = .000$ , TLI = .814, CFI = .859, SRMR = .077, RMSEA = .113으로 RMSEA가 .10보다 높아 모형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를 확인한 결과, 모-자녀관계의 측정변인인 친밀지지와 허용지원 간 수정적합도지수가 115.106으로 높아 친밀지지와 허용지원의 오차 간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변수들 상호 간에 오차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에 오차항 간 공분산을 설정할 수 있다(허준, 2014). 측정모형 재분석결과,  $\chi^2(58) = 296.417$ ,  $p = .000$ , TLI = .877, CFI = .909로 .90에 근접하였고, SRMR = .070, RMSEA = .092로 .10보다 작아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되었다.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나타내는 경로계수의 범위는  $\beta=.415\sim.971$ 이었다.

다음으로 모 자아분화를 독립변인으로, 자녀 자아분화, 자녀가 인식한 모-자녀관계를 매개변인으로, 또래관계 질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59) = 296.635$ ,  $p = .000$ , TLI = .880, CFI = .909로 .90에 근접하였으며, SRMR은 .070으로 .80보다 낮고, RMSEA는 .091으로 .10보다 낮아서 모형적합도가 허용할만한 수준이었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2와 같다.

연구모형에서 모 자아분화에서 자녀 자아분화에 이르는 경로( $b = .196$ ,  $\beta = .189$ ,  $t = 3.519$ ,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와 기술통계량 (N = 490)

잠재변인	모-자이분화			자녀-자이분화			모-자녀관계					포래관계 질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3-4	3-5	4	4-1	4-2
1. 모-자이분화 총점	-																
1-1. 정서적 반응(모, 여)	.891 <sup>***</sup>	-															
1-2. 정서적 단절(모, 여)	.826 <sup>***</sup>	.601 <sup>***</sup>	-														
1-3. 타인과 융합(모, 여)	.853 <sup>***</sup>	.671 <sup>***</sup>	.532 <sup>***</sup>	-													
2. 자녀-자이분화 총점	.168 <sup>***</sup>	.141 <sup>**</sup>	.158 <sup>***</sup>	.134 <sup>**</sup>	-												
2-1. 정서적 반응(자, 여)	.135 <sup>**</sup>	.119 <sup>**</sup>	.125 <sup>**</sup>	.103 <sup>*</sup>	.908 <sup>***</sup>	-											
2-2. 정서적 단절(자, 여)	.153 <sup>**</sup>	.120 <sup>**</sup>	.182 <sup>***</sup>	.091 <sup>*</sup>	.846 <sup>***</sup>	.677 <sup>***</sup>	-										
2-3. 타인과 융합(자, 여)	.152 <sup>**</sup>	.129 <sup>**</sup>	.108 <sup>*</sup>	.154 <sup>**</sup>	.842 <sup>***</sup>	.644 <sup>***</sup>	.550 <sup>***</sup>	-									
3. 모-자녀관계 총점	.157 <sup>**</sup>	.121 <sup>**</sup>	.155 <sup>**</sup>	.129 <sup>**</sup>	.432 <sup>***</sup>	.350 <sup>***</sup>	.430 <sup>***</sup>	.351 <sup>***</sup>	-								
3-1. 친밀지지	.025	-.006	.075	-.002	.205 <sup>***</sup>	.143 <sup>**</sup>	.369 <sup>***</sup>	.041	.471 <sup>***</sup>	-							
3-2. 권위통제(여)	.134 <sup>*</sup>	.108 <sup>*</sup>	.116 <sup>*</sup>	.122 <sup>**</sup>	.335 <sup>***</sup>	.293 <sup>***</sup>	.382 <sup>***</sup>	.211 <sup>***</sup>	.797 <sup>***</sup>	.546 <sup>***</sup>	-						
3-3. 부부관계(여)	.145 <sup>**</sup>	.115 <sup>*</sup>	.157 <sup>***</sup>	.102 <sup>*</sup>	.359 <sup>***</sup>	.296 <sup>***</sup>	.297 <sup>***</sup>	.343 <sup>***</sup>	.742 <sup>***</sup>	.212 <sup>***</sup>	.332 <sup>***</sup>	-					
3-4. 과잉기대(여)	.097 <sup>*</sup>	.068	.093 <sup>*</sup>	.090 <sup>*</sup>	.332 <sup>***</sup>	.250 <sup>***</sup>	.360 <sup>***</sup>	.264 <sup>***</sup>	.850 <sup>***</sup>	.419 <sup>***</sup>	.680 <sup>***</sup>	.357 <sup>***</sup>	-				
3-5. 허용지원	-.016	-.043	.030	-.025	.091 <sup>*</sup>	.044	.234 <sup>**</sup>	-.024	.391 <sup>***</sup>	.633 <sup>***</sup>	.416 <sup>***</sup>	.210 <sup>***</sup>	.339 <sup>***</sup>	-			
4. 포래관계의 질 총점	.063	.055	.088	.019	.376 <sup>***</sup>	.283 <sup>***</sup>	.506 <sup>***</sup>	.207 <sup>***</sup>	.364 <sup>***</sup>	.375 <sup>***</sup>	.398 <sup>***</sup>	.223 <sup>***</sup>	.280 <sup>***</sup>	.360 <sup>***</sup>	-		
4-1. 긍정적 포래관계	.016	.019	.052	-.032	.227 <sup>***</sup>	.140 <sup>**</sup>	.372 <sup>***</sup>	.101 <sup>*</sup>	.226 <sup>***</sup>	.359 <sup>***</sup>	.258 <sup>***</sup>	.139 <sup>**</sup>	.164 <sup>***</sup>	.379 <sup>***</sup>	.916 <sup>***</sup>	-	
4-2. 부정적 포래관계(여)	.109 <sup>*</sup>	.088	.112 <sup>*</sup>	.082	.472 <sup>***</sup>	.398 <sup>***</sup>	.549 <sup>***</sup>	.294 <sup>***</sup>	.451 <sup>***</sup>	.295 <sup>***</sup>	.477 <sup>***</sup>	.274 <sup>***</sup>	.360 <sup>***</sup>	.235 <sup>***</sup>	.841 <sup>***</sup>	.553 <sup>***</sup>	-
평균	3.924	3.626	4.311	3.836	4.141	4.015	4.513	3.897	4.009	4.294	4.189	3.885	3.954	3.833	3.140	3.062	3.219
표준편차	.654	.807	.746	.735	.677	.881	.706	.754	.765	.716	.756	1.075	1.052	.859	.373	.484	.360
왜도	.096	-.103	-.102	-.016	-.241	-.232	-.370	-.198	-.725	-1.327	-.958	-.680	-.866	-.489	-.773	-.681	-.715
첨도	-.081	-.183	-.333	.102	-.279	-.354	-.126	.100	-.067	1.533	.390	-.661	-.103	-.249	1.091	1.107	.774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연구모형의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모 자아분화 → 자녀 자아분화	.196	.189	.056	3.519***
모 자아분화 → 모-자녀관계	.037	.060	.032	1.182
모 자아분화 → 또래관계 질	-.006	-.012	.021	-0.284
자녀 자아분화 → 모-자녀관계	.272	.450	.043	6.307***
자녀 자아분화 → 또래관계 질	.193	.396	.024	7.910***
모-자녀관계 → 또래관계 질	.282	.351	.049	5.812***

\*\*\*  $p < .001$ .

$p < .001$ ), 자녀 자아분화에서 모-자녀관계에 이르는 경로( $b = .272$ ,  $\beta = .450$ ,  $t = 6.307$ ,  $p < .001$ ), 자녀 자아분화에서 또래관계 질에 이르는 경로( $b = .193$ ,  $\beta = .396$ ,  $t = 7.910$ ,  $p < .001$ ), 모-자녀관계에서 또래관계 질에 이르는 경로( $b = .282$ ,  $\beta = .351$ ,  $t = 5.812$ ,  $p < .001$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 자아분화에서 모-자녀관계에 이르는 경로( $b = .037$ ,  $\beta = .060$ ,  $t = 1.182$ ,  $p > .05$ )와 모 자아분화에서 또래관계 질에 이르는 경로( $b = -.006$ ,  $\beta = -.012$ ,  $t = -0.284$ ,  $p > .05$ )는 유의하지 않았다.

최적의 모형구성을 위해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여 간명도가 높은 간명모형을 설정한 후 연구모형과 간명모형 간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이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모형

과 간명모형의  $\chi^2$  값의 차이는 1.471로 두 모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연구모형보다 자유도가 큰 간명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최종모형에서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모 자아분화에서 자녀 자아분화에 이르는 경로( $b = .200$ ,  $\beta = .193$ ,  $t = 3.611$ ,  $p < .001$ ), 자녀 자아분화에서 모-자녀관계에 이르는 경로( $b = .281$ ,  $\beta = .464$ ,  $t = 6.469$ ,  $p < .001$ ), 자녀 자아분화에서 또래관계 질에 이르는 경로( $b = .192$ ,  $\beta = .395$ ,  $t = 7.958$ ,  $p < .001$ ), 모-자녀관계에서 또래관계 질에 이르는 경로( $b = .280$ ,  $\beta = .349$ ,  $t = 5.790$ ,  $p < .001$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에 팬텀변인을 설정하고 Bootstrapping

표 3. 모형의 적합도(N = 490)

	$\chi^2$	df	p	TLI	CFI	SRMR	RMSEA [90% CI]
연구모형	296.635	59	.000	.880	.909	.070	.091 [.081, .101]
간명모형	298.106	61	.000	.884	.909	.070	.089 [.079, .099]
차이	1.471	2	.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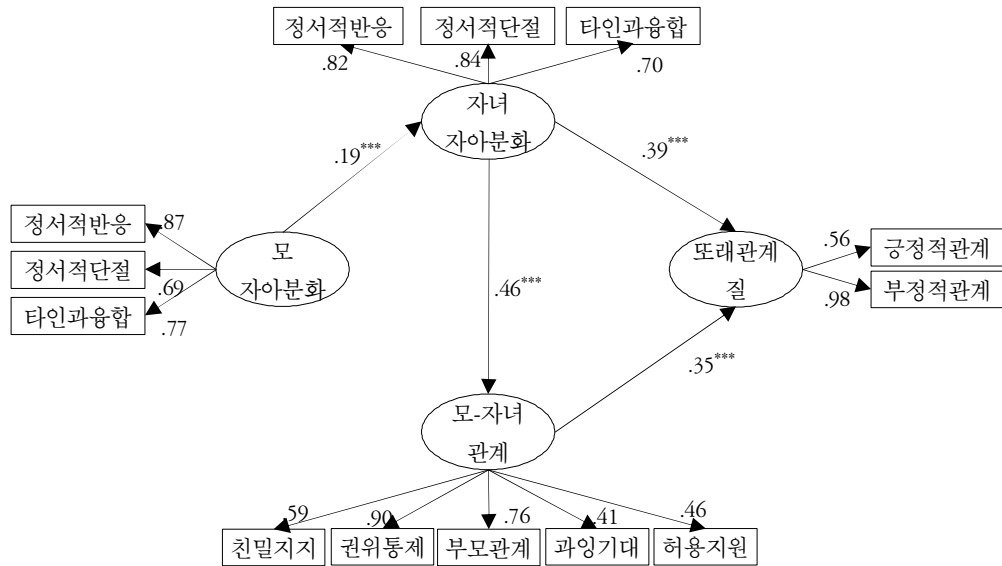


그림 2. 최종모형

을 활용하여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 자아분화에서 또래관계 질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추정값=.038, BC 95% CI [.017, .068]). 또한 모 자아분화에서 또래관계 질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녀 자아분화, 모-자녀관계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추정값=.016, BC 95% CI [.007, .032]). 모 자아분화부터 또래관계 질까지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기에 두 변인 사이에 직접 효과는 없었고, 모 자아분화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자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와 자녀

자아분화, 모-자녀관계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하여 간접효과만이 존재하였다. 이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 논 의

이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모 자아분화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자녀 자아분화, 모-자녀관계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표 4. 다중매개효과 검증

경로	추정값(b)	표준오차	p	BC 95% CI
간접 효과				
모 자아분화 → 자녀 자아분화 → 또래관계의 질	.038	.013	.000	[.017, .068]
모 자아분화 → 자녀 자아분화 → 모-자녀관계 → 또래관계의 질	.016	.006	.000	[.007, .032]
총효과	.054	.016	.001	[.024, .089]

대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 자아분화는 자녀 자아분화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녀 자아분화는 또래관계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모 자아분화와 또래관계 질에서 자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분화가 세대 간 전수를 통해 재생산 된다고 한 Bowen(1978)의 이론을 확인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모 자아분화가 자녀 자아분화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들(김혜원, 이수경, 백인혜, 한혜성, 2011; 하상희, 정혜정, 2008; Bartle & Anderson, 1991; Peleg, 2005)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정경연, 2007; Tuason & Friedlander, 2000)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자아분화 간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 자아분화 수준이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요인들에 의해 매개되어 직접적인 영향력이 감소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가령 Bowen과 Kerr(1988/2005)는 자아분화가 낮은 부모의 만성불안으로 인해 가족체계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자녀 역시 낮은 자아분화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매개변인들도 함께 고려하여 부모 자아분화와 자녀 자아분화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 자아분화는 또래관계 질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또래친밀감이 높고,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한 표현이 분명하고, 정서적 자발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정경연, 심혜숙, 2007)와 일치하며, 자아분화가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한 다른 연구들(남상철, 유영달,

2004; 배미예, 이은희, 2009; 이지민, 2010; 최다운, 전효정, 류미향, 201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또래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데 있어서 가족관계 안에서 부모 자녀 간에 자율성과 친밀성을 동반한 균형 있는 인지적, 정서적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확인해 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모 자아분화와 모-자녀관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아, 모 자아분화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자아분화 정도가 낮은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통제와 허용, 과보호의 경향이 높고, 양육 상황에서 감정 조절이 힘들고 친밀감과 자율성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우며(Davies & Cumming, 1994; Fauber, Forehand, Thomas, & Wierson, 1990), 모-자녀관계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전연진, 2002), 갈등(유은희, 전춘애, 1995; 제석봉, 1989)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달랐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모-자녀관계를 누가 지각했는지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 모 자아분화는 어머니의 지각에 기초하였고, 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지각에 기초하였는데 어머니가 지각하는 모-자녀관계와 자녀가 지각하는 모-자녀관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 모 자아분화와 모-자녀관계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자녀의 지각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지각하는 모-자녀관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모 자아분화는 자녀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 자아분화는 모-자녀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모-자녀관계 역시 또래관계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 자아분화와 또래관계 질에서 자녀 자아분

화와 모-자녀관계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모 자아분화 그 자체가 자녀의 또래관계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보다, 모의 건강한 자아분화의 수준 정도가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건강한 자아분화 수준은 모-자녀 관계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그 영향력이 긍정적인 또래관계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들(유은희, 전춘애, 1995; 전연진, 2002; 제석봉, 1989; Gavazzi, 1993)에서 자녀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모-자녀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모-자녀관계가 또래관계 질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자녀관계가 친밀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수용적일 때 자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이며 대인관계 유능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여겨진다(Becker, 1964). 이는 부모가 허용적이고 온정적일 때 자녀가 활동적이고 독립적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협동적이라고 한 연구결과(Medinnus & Curtis, 1963)와 부모-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또래관계가 긍정적이고, 심리적 안정감이 높았다는 연구결과(Grotevant & Cooper, 1985; Kerns, Klepac, & Cole, 1996)와도 일치한다.

종합하면 모 자아분화는 자녀 자아분화를 매개로 하여 또래관계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자녀 자아분화 및 모-자녀관계를 통한 다중매개효과를 통해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자아분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변인간의 단편적인 관계를 확인하는데 그쳐 모 자아분화와 또래관계 질 간에 자녀 자아분화, 모-자녀관계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대학

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대인관계문제를 높이며, 또한 자녀의 자아분화를 매개로 하여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최다운 등, 2017). 즉, 모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자녀 자아분화가 높으며, 이는 긍정적인 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주고, 최종적으로 자녀의 또래관계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선행연구들(윤태교, 이지민, 2017; 이지선, 정혜정, 2016)에서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낮아지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대인관계문제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또래관계 질에 있어서 자녀 자아분화 및 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모 자아분화와 아동의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에서 자녀 자아분화, 모-자녀관계의 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가족체계 내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자녀의 자아분화와 모-자녀 관계의 영향력이 현재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가족환경과 아동의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를 더 밀도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또래관계 문제 및 갈등 시 또래관계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모 자아분화, 자녀 자아분화와 모-자녀관계를 개선하고 증진시켜야 함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자아분화를 통한 부모의 태도 및 행동으로 연결되는 상호관계 패턴은 세대에서 세대로 상호관계 과정을 통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 양육태도 및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과 같이 연구가 가진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서양에서 개발되고 한국어로 번안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서구사회의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한 Bowen의 이론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문화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자들(이선희, 1998; 정경연, 2007)의 주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혜섭(2002), 정경연(2007)은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자아분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자아분화의 나-위치의 수렴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하위요인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타인과의 융합을 미덕으로 여기고 ‘우리’라는 개념을 중요시하며 독립된 나-위치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소지로 보는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서양문화의 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난 차이일 수 있다. 최인재(2004) 역시 한국의 자녀교육방식에 있어서 독립과 자율을 강조하는 서구의 가치와 달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협동적인 가족주의 가치관과 관계적인 문화를 강조하고, 권리보다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서구와 한국의 자기에 대한 개념차이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더 고려한 자아분화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는데 가족 및 개인의 문제를 타인에게 노출하기를 꺼려하여 연구 참가자들이 진솔하게 응답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비록 본 연구는 어머니용 설문지와 자녀용 설문지를 각각 모와

자녀가 따로 작성하게 하고, 별도의 봉투에 넣어 회수하도록 하였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가족 및 개인에 관한 내용이기엔 방어적 응답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관찰과 같이 다른 형태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G시 소재 8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국에 있는 모든 아동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을 더 확대하고, 연령의 범위 또한 다양화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상관관계에 기초한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처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실험연구 및 시간의 흐름이 내포된 종단연구와 같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질에 있어서 모 자아분화, 자녀 자아분화 및 모-자녀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자아분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주 연구대상은 대부분 부부, 대학생, 청소년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Bowen 이론의 세대전수 과정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아동기 및 이후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부모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또래관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신의 원가족과 정서적 관계를 통해 자신의 자기분화 수준을 점검하고, 모-자녀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모의 태도 및 행동은 세대에서 세대로 상호과정을 통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모와 자녀 자아분화 수준의 향상, 양육태도, 의사소통 등의 모-자녀관계 개선을 통해 자녀가 긍정적인 또래관계 질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부모교육 및 상담, 또래관계의 질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이며, 이 연구가 그 근거가 될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 참고문헌

- 김갑숙, 전영숙 (2009). 청소년의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자아분화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4), 79-94.
- 김병수 (2009).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 및 문화성향과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 분석.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21(4), 91-103.
- 김정택, 심혜숙 (1993). 자아분화 개념을 통한 Bowen의 정신역동적 가족치료와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 31-45.
- 김혜원, 이수경, 백인혜, 한혜성 (2011). 모녀간의 세대 간 전이여부와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이원학술논집*, 7, 21-52.
- 남상철, 유영달 (2007). 부모와 자녀의 양육태도 지각 및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51-75.
- 배미예, 이은희 (2009).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및 우울/불안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1), 85-112.
- 설경옥, 정승원 (2013). 초등학교생의 개인 및 부모환경요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학교소속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1), 41-58.
- 신혜섭 (2002). 보웬 가족치료 이론과 한국적 적용에 대한 고찰. *생활과학연구*, 7, 193-201.
- 유신복, 손원숙 (2013).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1), 179-200.
-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3), 79-90.
- 유은희, 전춘애 (1995). 모 자아분화 수준과 모자간의 갈등이 청년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1), 137-153.
- 윤태교, 이지민 (2017). 20대 성인 남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자기분화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4), 75-98.
- 윤혜경, 이지연 (2010). 중학생이 지각하는 또래관계 역량의 개념과 수준.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1), 1-18.
- 이미경, 김성희 (2011). 초등학교생 부모-자녀관계 척도개발. *상담학연구*, 12(3), 997-1017.
- 이선혜 (1998). 한국에서의 Bowen 이론 적용에 대한 고찰: 자아분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6(2), 151-176.
- 이지민 (2010).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대인관계와 대학생 우울 간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1(3), 1271-1287.
- 이지선, 정혜정 (201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1),

- 100-121.
- 전연진 (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경연 (2007). 부모 및 자녀의 자아분화수준과 아동이 지각한 세대간 가족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경연, 심혜숙 (2007). 부모 자아분화와 아동 자아분화 및 세대간 가족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8(6), 119-133.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의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영주, 최혜림 (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71-91.
- 최다운, 전효정, 류미향 (2017). 대학생의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 학술 발표논문, 11, 225-226.
- 최은실, 정선아 (2012). 초등학생의 애착, 정서 인식 및 표현능력, 또래관계, 행동문제 간의 관계구조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3), 443-464.
- 최인재 (2004). 부자유친성정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지은, 신용주 (2002). 서울시 남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가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7, 180-192.
- 하상희, 정혜정 (2008).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 상담학연구, 9(2), 789-806.
- 한동헌, 김완일 (2013).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1), 247-263.
- 허준 (2014).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 모형: 기초편. 서울: 한나래.
- Ainsworth, M. D. S., & Bowlby, J. (1991). An ethological approach to personality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6(4), 331-341.
- Anderson, S. A., & Sabatelli, R. A.(1992).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 DIF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1), 77-89.
- Bartle, S. E., Anderson, A. (1991). Similarity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levels of individuation. *Adolescence*, 26(104), 913.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Child development research*, 1.(pp. 169-208). New York: Ressel Sage.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owen, M., & Kerr, M. E. (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Markham, Ontario: Penguin Books.
- Bowker, J. C., Nelson, L. J., Markovic, A., & Luster, S. (2014). Social Withdrawal during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In R. J. Coplan & J. C. Bowker (Eds.), *The handbook of solitud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isolation, social withdrawal, and being alone* (Vol. 10, pp. 167-184). New York: John

- Wiley & Sons.
- Buist, K. L., Deković, M., Meeus, W., & van Aken, M. A. G. (2002). Developmental patterns in adolescent to mother, father, and sibl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3), 167-176.
- Bukowski, W. M., Newcomb, A. F., & Hartup, W. W. (Eds.), (1997).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 Fauber, R. L., Forehand, R., Thomas, A. M., & Wierson, M. (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4), 1112-1123.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Gavazzi, S. M., (1993). The relation between family differentiation levels in family with adolescent and the severity of presenting problems. *Family Relations*, 42(4), 463-468.
-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explor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2), 415-428.
-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 Kerns, K. A., Klepac, L., & Cole, A.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3), 457-466.
- Kerr, M. E., & Bowen, M. (2005).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88에 출판).
- Kleiman, J. (1981). Optimal and normal family functioning.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9(1), 37-44.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im, M. G., & Jennings, G. H. (1996). Marital satisfaction of healthy differentiated and undifferentiated couples. *Family Journal*, 4(4), 308-315.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2), 130-149.
- Medinnus, G. R., & Curtis, F. J. (1963).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self-acceptance and child accept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6), 542-544.
- Minuchin (1985). Famili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Provocations from the field of family therapy. *Child Development*, 56(2), 289-302.
- Nichols, M. P., & Schwartz, R. C. (2002). 가족치료: 개념과 방법. (김영애, 정문자, 송성자, 제석봉, 심혜숙, 김정택, 정석환, 김계현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1에



- 출판).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eleg, O. (2005). The relation between differentiation and social anxiety: What can be learned from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3(2), 167-183.
- Rubin, K. H., Dwyer, K. M., Booth-LaForce, C., Kim, A. H., Burgess, K. B., & Rose-Krasnor, L. (2004). Attachment, friendship,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4(4), 326-356.
- Satir, V. (2004). 가족치료. (홍성화, 안향림 역). 서울: 나눔의 집. (원전은 1967에 출판).
- Shaffer, D. J.(1994).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3rd ed). CA: Brooks/Cole.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kowron, E. A. (2004). Differentiation of self, personal adjustment, problem solving, and ethnic group belonging among persons of color.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2(4), 447-456.
- Skowron, E. A., & Friedlander, M. L. (1988).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235-246.
- Skowron, E. A., & Schmitt, T. A. (2003). Assessing interpersonal fusi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new DSI fusion with other subsca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2), 202-222.
- Steinberg, L.(2001). We know some thing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1), 1-19.
- Tuason, M. T., & Friedlander M. L. (2000). Do parent' differentiation levels predictive those of their adult children? and other tests of Bowen theory in a philippine samp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27-35.
- Underwood, M. K., & Rosen, L. H. (2011). *Social develop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Williamson, D. S., & Bray, J. H. (1988). Family development and change across the generations: An intergenerational perspective. In C. J. Falicov (Ed.), *Family transitions: Continuity and change over the life cycle* (pp. 357-384). New York: Guilford Press.
- 원 고 접 수 일 : 2018. 06. 29.  
수정원고접수일 : 2018. 10. 22.  
최종게재결정일 : 2018. 12. 02.

## **The Effects of Mother's Self-differentiation on the Child's Friendship Quality through Child's Self-differentiation and Mother-child Relationships**

**Youngwha Yang**

**Ju-Ri Joe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self-differentiation and child's friendship quality, mediated by child's self-differentiation and mother-child relationships.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48 elementary schools in G city, and the fifth and sixth grade students and their mother were asked to participate in a survey. Student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on child's self-differentiation, mother-child relationships, and friendship quality. Mother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on mother's self-differentiation. Data from 490 pairs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alyse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self-differentiation and child's friendship quality was mediated by child's self-differentiation. In addition,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self-differentiation and child's friendship quality was serially mediated by child's self-differentiation and mother-child relationships. Therefore, developing various programs to improve mother's self-differentiation, child's self-differentiation, and mother-child relationships may help students to build good relationships with their peers.

*Key words* : *mother's self-differentiation, child's self-differentiation, mother-child relationships, friendship quality, elementary school students*